

테오도르 폰타네(Theodor Fontane)의 『엄함과 섬힘 Irrungen Wirrungen』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갈등

金 永 珠

1.

독일 사실주의 작가 테오도르 폰타네(Theodor Fontane 1819 ~ 1898)는 19세기 독일 소설 문학을 대변해 주는 작가이다.¹⁾ 사실주의 문학의 주된 관심은 “현실의 반영 Wirklichkeitswiderspiegelung”²⁾이었다. 테오도르 폰타네 역시 현실의 반영을 그의 문학의 이상으로 삼았으며 이는 1853년 그의 논문 <1848년 이래의 우리들의 서정시와 서사문학 Unsere lyrische und epische Poesie seit 1948>에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소설은 우리들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의 상(像)이어야 한다. 그것은 적어도 그 경계에 우리 스스로가 서 있었거나, 그것에 대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 해 주었던, 그러한 삶의 반영이어야 한다.

Der Roman soll ein Bild der Zeit sein, der wir selber angehören, mindestens die Widerspiegelung eines Lebens, an dessen Grenze wir selbst noch standen oder von dem uns unsere Eltern noch erzählten³⁾

폰타네가 현실의 반영을 그의 문학을 위한 이상으로 삼고 있음은 1875년 구스타브 프라이트크(Gustav Freytag 1816 ~ 1895)의 <조상들 Die Ahnen>에 대한 그의 논평에서 소설의 과제를 “하나의 삶, 하나의 사회를 묘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왜곡(歪曲)되지 않는 반영인, 한 영역의 인간들을 묘사하는 것 ein Leben, eine Gesellschaft, einen Kreis von Menschen zu schildern, der ein unverzerrtes Widerspiel des Lebens ist, das wir führen”⁴⁾이라고 한 말에서도 나타나 있다.

1) Vgl. Thomas Mann: Der alte Fontane, in: Theodor Fontane, hrsg. v. Wolfgang Preisendanz, Darmstadt 1973, s.14.

2) Richard Brinkmann: Zum Begriff des Realismus für die erzählende Dichtung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Wege der Forschung Band CCXII) Darmstadt 1974, s. 222.

3) Theodor Fontane: Aufsätze zur Literature, hrsg. u. mit einem Nachwort von Kurt Schreinert, München 1963, s. 319.

4) Ebd. s. 316.

이와같이 사회현실의 재현을 자신의 문학의 이상으로 삼은 폰타네는 항상 사회현실에 대해 “깨어 있는 감각을 갖고 wachen Sinnes”⁵⁾, “사회상황에 대한 깨어 있는 관찰자 ein wacher Beobachter gesellschaftlicher Verhältnisse”⁶⁾ 로서 당대의 사회현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는 마치 지진계 (Seismograph)와 같이 19세기 독일 프로이센의 사회상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서술하였다. 당시 프로이센 사회는 3월 혁명의 실패, 산업혁명, 비스마르크 (Bismarck)의 국토통일, 경제적 팽창등의 결과로 귀족계급과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의 갈등과 모순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면에서 과도기 (過渡期)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⁷⁾ 폰타네는 냉철한 지성으로써 프로이센 사회의 모순성을 간파하고 뛰어난 역사적 통찰력과 비판력을 갖고 당대 사회현실을 그의 문학에 나타내었다.

폰타네는 30세에 약사직을 그만두고 문필가의 길을 택한 후 자유기고가, 신문기자, 영국과 견통신원, 보불전쟁 중군기자등으로 활약하였고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59세 부터였다. 그래서 그의 창작에는 성숙한 인생체험과 지혜가 들어 있다. 그는 작고할 때까지 많은 담시 (Ballade)와 연극평론 이외에 두 편의 역사소설과 15편의 사회소설을 써서 도합 17편의 소설을 완성하였다. 그의 소설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는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의 사회현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내맡겨진 인간의 상황이다.⁸⁾ 다시 말하면 그가 자신의 소설에서 다룬 사회현실은 인간과의 관계측면에서의 사회현실이며 그의 관심은 “시대특정적인 인간의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것 menschliche Verhaltensweisen in ihrer zeitspezifischen Ausprägung zu vergegenwärtigen”⁹⁾이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폰타네의 강한 흥미와 사랑이 그 이유일 수도 있고¹⁰⁾, 독일 교양소설의 전통에서 인간 개인의 의식상황에 대한 독일 소설작가들의 꾸준한 관심때문일 수도 있다.¹¹⁾ 요컨대 폰타네는 그의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시대성 속에 있는 인간 Der Mensch in seiner Zeitlichkeit”¹²⁾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폰타네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의 대부분의 소설의 기

5) Walter Müller-Seidel: Gesellschaft und Menschlichkeit in: Theodor Fontane, hrsg. v. Wolfgang Preisendanz, Darmstadt 1973, s. 171.

6) Paul Böckmann: Der Zeitroman Fontanes, in: DU II (1959), H.5, s. 66.

7) Fritz Martini: Deutsche Literatur im bürgerlichen Realismus 1848-1898, Stuttgart 1981, s. 23.

8) Paul Böckmann: a.a.O., s. 72

9) Horst Schmidt-Brümmer: Formen des perspektivischen Erzählens, München 1971, s. 7.

10) Vgl.

a) Walther Killy: Abschied vom Jahrhundert, in: Theodor Fontane, hrsg. v. Wolfgang Preisendanz, Darmstadt 1973

b) Theodor Fontane: Brief an Friedlaender, vom 24. Okt. 1888, in: Briefe an Georg Friedlaender, hrsg. v. Kurt Schreinert, Heidelberg 1954, s. 99. und s. 234.

11) Paul Böckmann: a.a.O., s. 60.

12) Ebd. s. 72.

본테마는, 많은 폰타네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개인의 내적인 욕구와 기존 사회질서와 관습, 규범사이의 갈등관계이다. 환언하면 폰타네의 소설에는 “한편으로는 관습의 힘과 시대를 규정하는 상황,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자발성과 깨어지기 쉬운 행복사이의 긴장관계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r Macht der Konvention und Zeitbestimmenden Situationen einerseits und der Spontaneität des Herzens und der Hinfälligkeit des Glücks andererseits”¹³⁾를 다루었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주제로 삼은 작품들중 하나인 <업힘과 힘>은 폰타네가 1888년에 완성한 소설로서 만년의 작품인 <에피 브리스트 Effi Briest>, <슈테힐린 Der Stechlin>과 함께 폰타네의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소설이다.¹⁴⁾ <업힘과 힘>에서 작가는 19세기 중엽 베를린사회의 서민계급의 한 여성과 귀족계급 남성과의 순수한 사랑이 신분의 차이와 사회적 관습의 벽 때문에 좌초하게 된 내용에서,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내적 욕구사이의 갈등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세탁부 님취(Nimptsch)부인의 양녀인 레네(Lene)는 어느날 자기 친구와 그 친구의 남동생과 함께 보트놀이를 하다가 증기선과의 충돌할 뻔 하여 운전미숙으로 물에 빠질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에서 구해준 귀족장교들 중 한 명인 보토 폰 리네키(Botho von Rienäcker)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두 연인은 신분의 차이와 사회관습의 벽에 부딪쳐 자신들의 사랑을 포기하고 서로를 단념하여 각기 자기 신분에 어울리며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자와 결혼한다. 레네와 보토는 진정한 개인적 행복을 체념하고 사회적 질서와 관습에 굴복하여 자신들의 내적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사회 앞에 자신을 체념한 것이다.

본 논문은 작가가 작품에서 제시한 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의 주제가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행복을 향한 개인의 내적 욕구가 어떻게 사회에 의해 위협받고 유린당하는가,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어떻게 체념으로 종결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연구방법으로서 폰타네 스스로 이 작품에 관해 “수천의 교묘한 기교 die tausend Finessen”¹⁵⁾를 사용했다는 언급을 상기하며 작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소한 대화, 한담(閑談) 및 공간묘사에 암시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고찰하고, 갈등의 첨예화 및 체념 그리고 폰타네의 의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13) Ebd. s. 72

14) Vgl. Charlotte Jolles: Theodor Fontane, 2. durchgesehene und ergänzte Aufl., Stuttgart 1976, s. 68.

15) Theodor Fontane: Aufsätze zur Literatur in: Ders.: Sämtliche Werke, Aufsätze, Kritiken, Erinnerungen, Bd. 1., München 1969, s. 319.

2.

파울 뵉크만 (Paul Böckmann)은, 폰타네가 남녀간의 연애의 테마에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사랑의 관계에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의 힘과 사랑의 기대를 갖고, 어떻게 사회의 요구, 질서, 관습에 대처하는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순수한 것, 본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로 관찰되며, 전승되어온 관념 및 그들 신분의 경제적 필요성과 어느 정도의 갈등을 일으키는가가 드러난다.

An der Libesbeziehungen enthüllt sich, wie der einzelne mit seinen persönlichen Gefühlskräften und Liebeserwartungen sich zu den gesellschaftlichen Ansprüchen, Ordnungen und Konventionen verhält, wieweit das Echte und Unmittelbare sich behauptet oder mit den überkommene Vorstellungen und wirtschaftlichen Notwendigkeiten des Standes in Konflikt gerät.¹⁶⁾

레네와 보토의 연애의 테마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의 테마가 어떻게 부각되었나를 고찰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두 남녀의 사랑의 성격을 확인하고 또 보토와 레네의 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보토가 표현한 것처럼 레네는 “소박함, 진실함, 자연스러움 Einfachheit, Wahrheit, Natürlichkeit”¹⁷⁾ 을 지닌 여성이며 “거짓말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혀를 깨무는...(sie) lügt nicht und bisse sich eher die Zunge ab”¹⁸⁾ 진실성을 갖고 있고 “상투적인 말투의 흔적이 전혀 없이 ... von Redensarten keine Spur”¹⁹⁾ 자연스러움이 그 본성을 이루는 여성이다. 게오르크 루카치 (Georg Lukács)는 <노년의 폰타네 Der alte Fontane >에서 레네를 다음과 같이 매우 호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워힘과 섞임>의 여주인공인 레네 님취는 소박하고 전혀 웨언이 없으며, 전혀 망상이 없는 모습으로 소설의 모든 다른 인물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우뚝 솟아 있다.

Lene Nimptsch, die Heldin von 'Irrungen Wirrungen' erhebt sich dagegen in einer schlichten, völlig phrasenlosen, völlig illusionslosen Weise moralisch hoch über alle anderen Gestalten des Romans.²⁰⁾

16) Paul Böckmann: a.a.O., s. 76.

17) Theodor Fontane: Irrungen Wirrungen, Nymphenburger Bd. 9, München 1979, s. 93 (이후부터 Text로 표기함)

18) Text: s. 133

19) Text: s. 132

20) Georg Lukács: Der alte Fontane in: Theodor Fontane, hrsg. v. Wolfgang Preisendanz, Wege der Forschung CCCLXXXI, Darmstadt 1973, s. 73.

보토 역시 귀족 남성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속한 귀족사회의 부자연스러움, 진실하지 못함, 꾸밈, 가식, 위선을 혐오하고 있다.

나는 살롱엔 무관심하며 모든 거짓스러운 것, 꾸민 것, 걸치레, 스마트한 것, 진지한 척하는 것, 손끝만 놀리는 것에는 혐오를 갖고 있다. — 이런 모든 것은 나에게겐 외국말 어휘처럼 질색이다.

Ich habe eine Gleichgültigkeit gegen den Salon und einen Widerwillen gegen alles Unwahre, Geschraubte, Zurechtgemachte, Schick, Tournure, Savoire-faire — mir alles ebenso haßliche wie fremde Wörter ²¹⁾

보토의 친구들이 보토를 일컬어서 “리벡커는 항상 자연스러움을 좋아했다. Rienäcker ... war immer fürs Natürliche”²²⁾ 라고 하듯이 보토는 자연성을 사랑하는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귀족이니 서민이니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각 신분은 모두 자기대로의 명예를 갖고 있으며 Jeder Stand hat seine Ehre”²³⁾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레베에게서 소박함과 자연성을 찾았던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의 사랑은 자연성, 순수성, 진실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다. 보토가 인간의 평등을 인식하고 있지만 폰타네가 설정한 레베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위치는 분명히 서민여성이어서, 레베는 되르(Dörr) 씨 백의 채소원에 딸린 작은 전세집에서 살며 세탁일과 재봉일로써 자신의 양모를 부양해야 하는 여성이며,²⁴⁾ 이와 반대로 보토는 남작신분으로서 귀족크렘을 드나들며 값비싼 미술품을 애호하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보다 사치스러운 환경²⁵⁾에서 살고 있는 귀족남성이다. 이와같이 서로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랑은 19세기 베를린 사회환경에서는 사회의 벽에 부딪치기 마련인 것이다.

3.

이제 두 연인의 사랑, 즉 두 연인의 개인적 행복에 작용하는 사회의 위협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 보자. 이 작품은 모두 26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품의 처음부터 개인과 사회의 갈등의 주제가 서서히 나타나, 때로는 주변인물들간의 대화에서 때로는 두 연인의 사랑의 공간묘사에서 때로는 주인공들의 의식상황과 행동양식에서 부각되어져 있고 작품

21) Text: s. 93-94.

22) Text: s. 50

23) Text: s. 22

24) Vgl. Text: x. 7, s. 24

의 증상에 해당하는 13 장까지 서서히 진전되다가 13 장에서 갈등의 첨예화를 보인다.

작품 처음에 등장하는 대화를 일례로 들어보자. 폰타네는 레네와 보토가 작품에 등장하기 전에 두 사람에게 대한 제삼자들 간에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즉 되르부인과 님취부인의 대화이다.

…… 님취부인, 당신은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레네의 백작을 보면, 난 나의 백작을 생각하고는 부끄러워집니다.……

…….Liebe Frau Nimptsch. Sie können sich so was gar nicht denken. Gräblich war es. Und wenn ich mir nu der Lene ihren Baron ansehe, denn schämt es mir noch, wenn ich denke, wie meiner war. ²⁶⁾

되르부인은 현재의 남편 되르썸과 결혼하기 전 처녀시절에 어느 귀족백작과 교제한 과거를 지닌 서민여성이다. 그녀와 그 백작과의 관계는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되르부인의 표현처럼 “무서운 일”이었고, 서민여성이 백작의 사랑놀음의 상대가 되어준 상황이었다. 그런데 되르부인이 님취부인에게 한 말에는 레네와 보토의 사랑을 되르부인 자신의 과거 백작과의 관계와 꼭 같이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되르부인은 레네와 보토의 연애를 자신의 옛 과거의 일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우리들의 주인공 레네와 보토의 사랑은 진솔한 바처럼 진실성과 자연성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되르부인의 “무서운 일”과는 다른 순수한 인간적 만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되르부인의 시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서민여성 되르부인으로 대변되는 서민사회가 레네의 연애를 바라보는 시각, 즉 사회적 시각인 것이다. 레네의 사랑은 본인의 기대와는 아랑곳없이 되르부인의 과거와 별다르게 간주되지 않는다. 한스 에스터(Hans Ester)가 지적하듯 레네의 사랑은 사회적 시각으로 조명됨에 따라 “통속화되고 trivialisiert” ²⁷⁾ 있다. 그래서 레네의 사랑은 사회에 의해 “불가피한 결별 die unausbleibliche Trennung” ²⁸⁾ 을 예측하게 한다. 즉 사회는, 되르부인이 귀족백작과의 사랑놀음을 끝내고 같은 서민인 되르썸과 결혼했듯이, 레네도 역시 보토와 이별하게 될 것을 예측한다. 되르부인은 마치 고대연극에서 서막처럼 소설의 상황을 밝혀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앞으로 레네와 보토의 사랑이 사회에 의해 무참히 꺾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작가는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사회의 존재를 주변인물들간의 사소한 대화에서 미리 암시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25) Text: s. 35

26) Text: s. 9.

27) Hans Ester: Über Redensart und Herzenssprache in Theodor Fontanes “Irrungen Wirrungen” in: Acta Germanica 7 (1972) Kapstadt, s. 103.

28) Hans-Heinrich Reuter: Theodor Fontane, Bd II. München 1975 s. 645

그러면 이제 두 연인이 즐겨 만나는 공간의 묘사에서도 그들의 개인적 행복이 사회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보자. 작자가 레네와 보토에게 제공하는 만남의 장소는 주로 되르씨의 채소원이나 채소원 근처의 빌머스도르프(Wülmersdorf) 초원이다. 즉 그들의 만남의 장소는 사회와 격리화되다시피한 공간이다. 그들은 결코 베를린 거리를 당당하게 확보한 일도 없고 시내 중심가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일도 없다. 이제 두 연인의 만남의 공간인 되르채소원의 묘사를 살펴보자.

푸른 색과 붉은 색을 칠한 탑이 있는 <성> 앞까지 오자 보토와 레네는 멈추어서 되르씨에게 밤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정원에 들어가 반시간동안 산보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허락을 청했다. 되르씨는 자기 소유지를 당신들 보다 더 잘 보살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고 입안에서 중얼거렸다.(...) 다만 즐탄만은 두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자 벌떡 일어나 킹킹대었다. (...) 뜰 안은 온통 향기로 가득차서 아주 상쾌했다. 넓은 길을 따라 구즈베리 덤불사이로 아라세이드와 목서초가 쪽 서있고 그 향긋한 냄새와 백리향의 강렬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

Vor dem Schloß mit dem grün und rot gestrichenen Turme machten Botho und Lene halt und baten Dörr in aller Förmlichkeit um Erlaubnis, noch in den Garten gehen und eine halbe Stunde darin promenieren zu dürfen. Der Abend sei so schön. Vater Dörr brummelte, daß er sein Eigentum in keinem besseren Schütz lassen könne, (...) und nur Sultan, an dem sie vorbei mußten, richtete sich hoch auf und winselte. (.....) Drinnen in Garten war alles Duft und Firische; denn den ganzen Hauptweg hinauf, zwischen den Johannis- und Stachelbeerstrauchern, standen Levkojen und Reseda, deren feiner Duft sich mit dem Kräftigeren der Thymianbeete mischte²⁹⁾

이 채소원은 피상적인 연구가들에게 의해 이따금 낙원으로 표현되어 사회적 벽이 배제된, 두 연인의 사랑의 완전한 장소로서 해석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되르씨의 채소원과 그 속을 산보하는 두 연인에 대한 폰타네의 묘사에는 두 연인의 행복이 위협당하고 있는 불안한 행복임이 암시되어 있다. 공간묘사에 암시된 두 연인의 불안한 행복은 마리안네 체르너(Marianne Zerner)의 지적대로 “위험받은 행복 bedrohtes Glück”³⁰⁾이다. 두 연인이 걸어 들어간 곳은 피상적으로 낙원인듯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낙원이 아니라 콜베(G.Kolbe)의 표현대로 “위험하고 허상의 전원 eine gefährliche und trügerische Idylle”³¹⁾인 것이다. 되르씨의 채

29) Text: s. 30

30) Marianne Zerner: Zur Technik von Fontanes “Irrungen Wirungen,” in: Monatshefte 45 (1953), s. 26.

31) Jürgen Kolbe: “Die Erneuerung” und “Die Wahlverwandschaften” und die Romane Theodor Fontanes, in: Goeths Wahlverwandschaften und der Roman des 19. Jahrhunderts, Studien zur Poetik und Geschichte der Literature, 7. Stuttgart/Berlin/Köln/Mainz 1968. s. 194.

소원이 그 성격상 “격리되어 있고 Zurückgezogenheit”³²⁾, 거의 “반쯤 동화같은 정적 hal-märchenhafte stille”³³⁾을 갖추고 있어 목서초, 아라세이도 꽃향기, 구즈베리 덩불 등의 묘사가 천상(天上)의 분위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되르씨는 “아버지 되르”라고 명명되어 천국에 입장하기 전에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³⁹⁾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되르씨의 답변이 불분명하고 미심쩍게 단지 “중얼거림”으로써만 끝나고 있고, 거기에는 줄탄이란 개가 공연히 짖어 대어 두 연인과 독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즉 두 연인이 걸어 들어간 낙원에는 두 연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불안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또 그들의 질문은 중얼거리는 명확치 못한 답변밖에 듣지 못하며 그들의 행복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무리 되르정원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지만 그곳 역시 사회를 벗어난 낙원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사랑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 사회의 위협을 벗어날 수 없는 레네와 보토의 사랑은 “실자리를 완전히 갖고 있지 못하며 그럼으로써 객관적 불가능성 Die absolute Ortlosigkeit und damit objektive Unmöglichkeit”³⁴⁾을 보여 준다. 이렇게 폰타네는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묘사하면서 단순히 경험적, 일상적인 현실공간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레네와 보토의 사랑이 사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두 연인의 만남의 공간에서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중앙에 이르러 개인의 행복은 사회의 막강한 힘에 의해 완전히 유린당하는 상황이었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그 첨예화를 이룬다. 폰타네는 레네와 보토의 행동과 의식상황에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복에 대해 사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레네와 보토가 베를린 근교의 한켈저장소라는 이름을 지닌 유원지로 소풍을 갔을 때의 일이다. 두 연인은 유원지 강변의 한적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레네와 보토는 사회적 제약에서 탈피한 기분으로 그들의 “단 둘만의 행복 Das Glück des Alleinseins”³⁵⁾을 “마음껏 in vollen Zügen”³⁶⁾ 누린다. 두 연인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 사회적 관습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자 배를 타고서만 갈 수 있는 외딴 곳인 한켈저장소로 소풍을 온 것이다. 보토는 “그렇게 행복해 하는 레네를 보는 것 Lene so glücklich zu sehen”³⁷⁾이 기뻐고, 레네는 “고통과 걱정의 모든 숙고 Alle Betrachtungen von Leid und Sorge”³⁸⁾에서 벗어났다.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 (Gerhard Friedrich)는

32) Text: s. 7

33) Text: s. 7

34) Codula Kahrmann: *Idyll im Roman*. Theodor Fontane, München 1973, s. 154.

35) Text: s. 64

36) Ebd.

37) Ebd.

38) Text: s. 76

두연인의 소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의 정점은 한켈저장소로의 소풍이다. 레네와 보토는 방해받지 않고 서로에게 몰두할 수 있기 위해 한적함을 찾는다.

Gipfel dieses Glücks ist die gemeinsame Fahrt nach Hankels Ablage. Lene und Botho suchen die Einsamkeit, um sich ungestört hingeben zu können³⁹⁾

그러나 이들의 행복의 절정은 그 이튿날 아침 슈프레강변을 산보할 때 보토의 어설픈 행동 때문에 급전직하하게 된다. 보토는 우연히 클럽친구 세명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화류계 여성 세명을 만나는데 보토의 클럽친구들은 쉴러(Schiller)의 〈오를레앙의 처녀 Die Jungfrau von Orleans〉란 희곡에 나오는 여성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의 사랑놀음에 참여한 여성들을 소개하여 세 여성들을 가리켜 이자보(Isabeau) 여왕, 요아나(Johanna) 양, 마르고(Margot) 양이라고 농담삼아 둘러댄다. 이때 얼떨결에 취한 보토의 행동을 살펴보자.

보토는 오늘 사용하는 어구가 어느 것인지를 알고는 빨리 상황에 적응하여 이제 자기 편 소개를 하면서 가벼운 손동작으로 레네를 가리키며 “아그네스 소렐양”이라고 응수했다.

Botho sah, welche Parole heute galt, und sich rasch hineinfindend, entgegnete er, nunmehr auch seinerseits vorstellend, mit leichter Handbewegung auf Lene ‘Mademoiselle Agnes Sorel’⁴⁰⁾

즉 보토는 레네를 소개하면서 자기도 친구들이 하는 식대로 자기결의 레네를 가리켜 쉴러의 같은 희곡에 나오는 여성인물의 이름을 따서 아그네스 소렐양이라고 말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서 레네는 순식간에 보토친구들이 데리고 온 여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여 화류계 여성과 동격화되어 버린다. 화류계 여성들의 사랑놀음은 상대남성과 아무런 정서적 유대감을 갖지 않는데 레네의 사랑도 보토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뮐러·자이델(Müller-Seidel)이 지적하듯 화류계 여성들과 똑같이 “사랑유희의 황혼빛 die Zwielight der Liebelei”⁴¹⁾ 차원으로 끌어내려지고 그들의 행복은 슈미트·브뤼머(Schmidt-Brümmer)가 표현하듯 “... 다른 사람들과 같은 차원으로 auf die gleiche Ebene mit den Übrigen”⁴²⁾ 되어 버리는 것이다. 보토가 레네를 위하여 달리 행동하여 자신있게 자신들의 진실된 사랑을 밝힐 수 없었던

39) Gerhard Friedrich: Die Frage nach dem Glück in Fontanes “Irrungen Wirrungen,” DU 11 (1959), H. 4, s. 80

40) Text: 79

41) Walter Müller-Seidel: Theodor Fontane, Soziale Romankunst in Deutschland. Stuttgart 1975, s. 159.

42) Horst Schmidt-Brümmer; a.a.O., s. 62

것은 보토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회의 힘에 위협당하고 그 위협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즉 보토의 레네에게 향한 사랑은 물론 자연적, 진실한 차원의 사랑이지만 사회와의 부딪힘이 있을 때, 즉 그가 속한 귀족사회의 친구들의 면전에서 레네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사회적 관습의 압박에서부터 전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출현은 보토가 사회의 요구에 의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요구에서 보토는 벗어날 수 없으며 그는 친구들의 유희에 같이 적응하도록 강요당한다.

Das Auftauchen der Freunde hat zur Folge, daß Botho auf die Ansprüche hingewiesen wird, die seine Welt an ihn hat. Und diesen Ansprüchen vermag er sich nicht zu entziehen, sondern er wird gezwungen, sich in das Spiel der Kameraden zu fügen⁴³⁾

4.

한켈저장소로의 소풍으로 두 연인의 행복은 “전환점 Wendepunkt”⁴⁴⁾ 을 맞게 되어 소설 14 장 부터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결국 체념으로 제시된다.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여 개인을 행복에서부터 추방하는 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으로서 보토에게 부가되는 결정적인 사회의 호출은 어머니의 편지이다. 어머니는 아들 보토에게 집안의 경제적 곤궁을 구하고 동시에 귀족 신분에게 맞는 결혼을 위해 부유한 귀족아가씨 케테 켈렌틴 (Kathe Sellentin) 양과 곧 결혼결정을 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그것이 집안을 구하는 일임을 다짐한다.⁴⁵⁾ 독자는 소설 7 장에서 외숙부 안톤 (Anton) 과 보토의 대화에서 보토가 케테양과 “약혼한 것이나 다름없다... so gut wie gebunden”⁴⁶⁾ 란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보토의 의식상황을 살펴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체념으로 종결되는가를 알아보자.

보토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고민에 빠진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소위 상류층 출신인 평범한 일간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을 혼련시킨다든가 거세한 수탉요리를 자른다든가, 내기를 하는 것이 고작이다. 할 수 있는 것이란 그것 뿐이다. 그러니 기마복에서, 웨이터, 아니면 도박사중의 하나를 택하여야 할 판이다.

43) Gerhard Friedrich: a.a.O., s. 80.

44) Ebda.

45) Text: s. 91

46) Text: s. 45

Wer bin ich? Durchschnittsmensch aus der sogenannten Obersphäre der Gesellschaft. Und was kann ich? Ich kann ein Pferd stallmeistern, einen Kapaun tranchieren und ein Jeu machen. Das ist alles, und so habe ich denn die Wahl zwischen Kunstreiter, Oberkellner und Croupier. 47)

보토는 그 자신이 뛰어난 위인이 못되며 평균적 인간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의 미약함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다.

…나는 세상에 도전한다든가 이 세상의 편견에 대해 공공연히 선전 포고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 돈키호테같은 짓거리는 질색이다.

... Es liegt nicht in mir, die Welt herauszufordern und ihr und ihren Vorurteilen öffentlich den Krieg zu erklären: ich bin durchaus gegen solche Donquichoterien. 48)

보토에게는 자신의 “사회적인 뿌리박음 Gesellschaftliche Verwurzelung” 49)이 중요하다. 그는 칼 리히터(Karl Richter)의 지적대로 “사회에 묶여 있는 존재 Verhaftetsein in der Gesellschaft” 50)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족신분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댓가로 귀족신분을 떠나 죽음을 당한 귀족 힌케다이(Hinkedey)의 비석을 보고 보토는 결국 “출신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daB das Herkommen unser Tun bestimmt” 51)는 생각을 갖는다. 그는 개인이 사회의 초개인적인 질서 속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벗어나는 자에게는 단지 불행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힌케다이의 비석은 레네와 케테 두 여성사이에서 방황하는 보토자신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준 하나의 징조가 된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일하는 모습과 그들의 아내들이 점심식사를 준비해 온 광경을 바라보는데 일과 질서로 충만되어 있는 마르크지방 사람들의 생활의 단면은 그에게 “나도 나의 질서를 가져야 한다. 질서는 결혼이다. Ich muB doch meine Ordnung haben. Ordnung ist Ehe” 52)는 생각을 확인해 준다. 보토의 이러한 “사회에 얽매인 상황”은 바로 보토의 탈출구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후에 보토가 그의 연대 동료 렉신(Rexin)과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보토는 그의 동료 렉신이 서민여성 헨리에테(Henriette)와 연애중이면서 렉신이 사회적 관습 내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자신의 “진실한 사랑 Wirkliche Liebe” 53)을 위해서 “중간의 길 Mi-

47) Text: s. 92

48) Text: s. 93

49) Karl Richter: Resignation. Eine Studie zum Werk Theodor Fontanes in: Studien zur Poltik und Geschichte der Literatur, hrsg. v. H. Fromm, H. Kuhn, W. Muller-Seidel und F. Sengle, Stuttgart 1966, s. 32.

50) Ebd. s. 26

51) Text: s. 94

52) Text: s. 95

53) Text: s. 151

tteilkurs ”⁵⁴⁾ 을 건졌다하며 사랑을 단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족과의 유대를 끊지도 않으면서 정식으로 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렉신에게 그러한 길을 걸지 말라고 충고하며 그것은 “ 파산이고 항구라고 믿은 것은 사실은 난파이다… ist Bankrott und was Ihnen Hafen Scheint , ist Scheiterung ”⁵⁵⁾ 라고 말한다. 보토의 견해로는 인간은 사회에 얽매어 있는 존재이어서 귀족남성이 서민여성을 사랑할 경우 자신의 사랑을 좇아 서민여성을 택한다 하더라도 귀족사회의 질서와 배척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단호하게 사회와 벽을 쌓고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자신의 독자적 행복을 이룩해 보려고 하더라도 개인의 내면자체가 이미 사회의 요구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르든지, 사회의 요구를 따르든지 간에 개인은 어느 쪽에서든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은 탈출구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내면이 유약하고 사회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를 배척하고 사회를 떠나서 오로지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을 따르더라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견해는 폰타네의 입센에 대한 비판에서도 엿볼 수 있다. 폰타네는 입센의 연극을 평하면서 입센이 사회질서를 개혁하는 문제에서 모든 외적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성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혹평하였다. 폰타네는 인간의 내면이 전승되어온 사회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기에는 그 스스로 너무나 유약함을 통찰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입센의 복음이 설교하는 것처럼, 낡은 걸보기에 범속한 질서의 힘의 자리에 자유로운 마음의 규정을 세운다는 것에 세상이 합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혁명 중에서 가장 큰 혁명이 되리라. 그것은 종말의 시작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부러지기 쉬움과 짓대없는 허약함이다.

Die größtente aller Revolution wäre es, wenn die Welt, wie Ibsens Evangelium es predigt, übereinkäme, an Stelle der alten nur scheinbar prosaischen Ordnungsmächte die freie Herzensbestimmung zu setzen. Das wäre der Anfang vom Ende. Denn so groß und stark das menschliche Herz ist, eins ist noch größer: seine Gebrechlichkeit und wetterwendische Schwäche.⁵⁶⁾

보토가 레네에게 쓴 이별의 마지막 편지에는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인 “ ~ 해야한다. (muB)” 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보토는 “ …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기 때문

54) Text : s. 152

55) Ebd.

56) Theodor Fontane; Causeries über Theater, (Nymphenburger) Bd. 14 München 1978, s. 339.

에 빨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 es muB sein, und weil es sein muB, so sei es schnell”⁵⁷⁾ 라고 말하면서 그의 체념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보토의 체념은 거의 숙명적인 체험이다. 그는 방안에 들어온 파리를 쫓다가 체념해 버리며 “체념이야. 행복이 최고야. 터키인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야. Also Resignation. Ergebung ist überhaupt das Beste. Die Türken sind die klügsten”⁵⁸⁾ 라고 터키인들, 즉 이슬람교도들이 가진 숙명론의 철학을 자신의 처지에 견주어 본다. 파리는 “불행의 사자 Unglücksboten”⁵⁹⁾ 처럼 보토의 방에 침입해 들어 왔는데 이는 마치 케테가 레네와 보토의 사랑에 침입해 온 것과 흡사하다. 파리는 결국 주인을 항복하게 만들듯이 케테, 즉 사회의 요구는 보토를 항복하고 체념하게 만든 것이다. 보토가 레네를 떠난 것은 보토의 탈출구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행복을 체념한 결과이며 결코 레네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체념은 막강한 사회의 요구에 대한 개인의 행복이며 무력한 개인이 처한 탈출구 없는 상황하에서의 어쩔 수 없는 굴복을 말한다. 명랑한 미모의 귀족아가씨이지만 “사회에 배아리 Gesellschaftsecho”⁶⁰⁾ 에 불과하여 감정과 성격의 깊이가 없어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없고 ... Kein ernstes Wort mit ihr zu reden war”⁶¹⁾, 귀족사회의 공허성, 꾸밈, 겉치레를 대변하며 늘 상투적 언어를 사용하며 “잡담의 재능 Talent für Plauderei”⁶²⁾ 만을 갖고 있는 케테와의 결혼을 결심함으로써 보토는 사회 앞에 자신을 체념해 버린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레네의 체념은 보토와의 마지막 이별 장면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한켈저장소로의 소풍이 그녀에게 “마지막 행복 letztes Glück”⁶³⁾ 일 것이라고 말한 레네는 자신이 애초부터 망상을 갖지 않았던 현실이 이제 다가온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일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왔을 따름이에요. 아름다운 꿈을 꾸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꿈이 사라져 현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불평할 건 없어요. 지금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모든 것은 잊혀지거나 다시 밝은 얼굴을 띄게 되요.

Ich habe es so kommen sehen, von Anfang an und es geschieht nur was muB: Wenn man schön geträumt hat, so muB man Gott dafür danken und darf nicht klagen, daB der Traum aufhört und die Wirklichkeit wieder anfängt. Jetzt is es schwer aber es vergiBt sich alles oder gewinnt wieder ein freundliches gesiecht.⁶⁴⁾

57) Text: s. 96

58) Text: s. 89

59) Ebd.

60) Text: s. 129

61) Text: s. 108

62) Text: s. 129

63) Text: s. 88

64) Text: s. 98

레네의 체념에는 결연함이 있다. 이러한 결연한 태도는 결코 보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열렬함이 냉각된 때문이 아니다. 레네가 보토와 이별한 후, 곧 보토 부부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목격했을 때의 레네의 비참한 심경과 충격, 그리고 그녀의 기절(氣絶)의 상황⁶⁵⁾은 레네가 보토와 이별 후에도 여전히 보토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레네의 체념은 사회적 관습의 벽을 깨뜨릴 수 없으며 이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찰한 결과이다. 레네는 보토의 탈출구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보토를 전혀 비난하지 않고 행여 보토가 죄의식을 가질 것을 염려하여 한켠저장소에서의 행동은 “나의 스스로의 결정 *mein freier Entschluß*”⁶⁶⁾이었음을 명백히 밝힌다.

보토와 레네의 이러한 체념은 언뜻 보면 무리없는 타협과 마찰없는 해결인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케테와 결혼한 보토의 삶이 행복이 없는 삶이어서 후일 보토가 표현하듯 “단지 한알의 사탕알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 *ein Bonbon, nicht viel mehr.*”⁶⁷⁾ 그리고 레네가 그후 자신의 신분에 맞게 결혼한 남성인 공장기술자 프랑케(Franke)가 성실한 남성이지만 “약간 앞뒤가 막혀 있으며 *etwas zugeknöpft*”⁶⁸⁾ “정직하긴 하지만 삭막한 광신자의 거의 그로테스크한 상 *das fast groteske Bild eines ehrenhaften aber trocknen Sekretiers*”⁶⁹⁾ 입을 느끼게 해주는 타입이라는 사실은 “이성과 정열이 동시에 가장 잘 혼합되어 있는 <Sie hatte> *die glückliche Mischung und war vernünftig und leidenschaftlich zugleich*”⁷⁰⁾ 여성인 레네에게 그가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남성이 되지 못하여 레네의 삶 역시 행복이 없는 삶을 예견하게 한다. 사회적 질서 및 관습과의 갈등에서 체념한 보토와 레네 두 남녀는 자신들의 개인적 행복을 몰수당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의 체념은 커다란 비극성을 지닌다. 그들의 체념은 “속수무책과 파멸 *Ratlosigkeit und Scheiterung*”⁷¹⁾이며 “지극히 비극적인 상황 *ein Zustand von höchster Tragik*”⁷²⁾이다.

5.

그러면 개인과 사회의 갈등에서, 체념으로써 자신들의 행복을 포기한 보토와 레네의 모습에서

65) Text: s. 105

66) Text: s. 98

67) Text: s. 144

68) Walter Müller-Seidel: Theodor Fontane, a.a.O., s. 268.

69) Marianne Zerner: a.a.O., s. 25

70) Text: s. 145

71) Gerhard Friedrich: a.a.O., s. 86

72) Ebd. 85

폰타네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독자들에게 사회의 막강한 힘을 인식하도록 설교한 것도 아니고, 부디 사회관습에 거역하지 말고 체념하도록 지침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는 레네와 보토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사랑에 대하여 귀족사회관습과 사회질서가 그들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 장본인임을 밝혀서 19세기 독일 프로이센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사회관습의 비인간성을 간파하여 예리한 사회적 감각으로서 당대 사회현실을 파헤친 것이다. 폰타네 스스로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 그가 관심을 둔 것은 남녀의 연애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테마에 부각된 사회관습의 문제성을 제시함이었다.

소름끼치도록 너무나 비슷비슷한 사랑이야기는 지루하다. 그러나 사회상황, 그 속에 숨어 있는 관습들, 이것들이 지닌 위험한 정치성 ...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을 끄는 점이다.

Liebesgeschichten in ihrer schauderösen Ähnlichkeit haben etwas Langweiliges – aber der Gesellschaftszustand, das Sittenbildliche, das versteckt und gefährlich Politische, das diese Dinge haben... das ist es, was mich so sehr daran interessiert. ⁷³⁾

폰타네가 〈엄힘과 섹힘〉을 창작한 의도가 “갓가지의 인습적인 거짓 속에서 in allenhand konventioneller Lüge”⁷⁴⁾ 살고 있는 귀족들의 사회관습이 지닌 위선을 제시하기 위해서 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폰타네는 이 소설로써 자신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엄힘과 섹힘〉을 읽는 독자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체험으로 종결되고, 그 이후의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상황에서 행복을 향한 인간의 내면적 욕구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동정심을 느낀다. 그래서 보토와 레네에게 그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관습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며 인간의 삶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인간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삶의 조건의 필요불가결성을 인식하게 된다. 폰타네는 이렇게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 당대 프로이센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비판적 비평가들이, 폰타네가 사회현실에 대해 훌륭한 통찰력을 소유하면서도 사회상에 대한 그의 자세는 그저 “어정쩡함 Halbheit”⁷⁵⁾ 에 그치고 체념이나 회의를 안주하였다고 한 것은 하나의 오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보토와 레네의 체념의 비극성에서 인간삶의 보다 나은 조건을 지닌 사회현실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사회현실의 개혁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작가의 세계관적 결단으로서 휴머니티에 대한 확신이며⁷⁶⁾ 그가 꿈꾼 사회는 인간성이 온전히 존립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 본 논문으로서 다시 한번 명백해 졌다고 하겠다.

73) Zitiert nach: Richard Brinkmann: Theodor Fontane. Über die Verbindlichkeit des Unverbindlichen, Tübingen 1977. s. 12

74) Theodor Fontane: Briefe an seine Familie (vom 8. 9. 1887) 2. Bd., s. Fischer Verlag Berlin 1924, s. 155

75) Georg Lukács: Deutsche Realisten des 19. Jahrhunderts, Berlin 1953. s. 297

76) Vgl. Karl Richter: Resignation, a.a.O., s. 128

참 고 문 헌

1. Fontane, Theodor; Nymphenburger Taschenbuch-Ausgabe, kommentiert v. Kurt Schreinert, zu Ende gefuhrt v. Annemarie Schreinert, 15 Bde. München 1978.
2. Ders. : Aufsätze zur Literature. hrsg. u. Mit einem Nachwort von Kurt Schreinert, München 1963.
3. Ders.: Briefe an Georg Friedlaender. hrsg. v. Kurt Schreinert, Heidelberg 1954.
4. Böckmann, Paul: Der Zeitroman Fontanes. In: Der Deutschunterricht, 11, H. 5 (1959), S. 59-81.
5. Brinkmann, Richard; Theodor Fontane. Über die Verbindlichkeit des Unverbindlichen. Tübingen 1977.
6. Ders.: Zum Begriff des Realismus für die erzählende Dichtung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Wege der Forschung Band CCXII) Darmsatdt 1974.
7. Ester, Hans: Über Redensart und Herzenssprache in Theodor Fontanes "Irrungen Wirrungen," In: Acta Germanica 7 (1972) Kapstadt, Heidelberg 1954.
8. Friedrich, Gerhard; "Die Frage nach dem Glück in Fontanes "Irrungen Wirrungen" Der Deutschunterricht, 11, H. 4 (1959), S. 76-87.
9. Jolles, Schlotte: Theodor Fontane, 2. durchgesehene und ergänzte Aufl. Stuttgart 1976.
10. Kahrman, Cordula: Idyll im Roman, Theodor Fontane, München 1973.
11. Kolbe, Jürgen: Die Erneuerung. Die Wahlverwandtschaften und die Romane Theodor Fontanes. In: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und der Roman des 19. Jahrhunderts, Stuttgart/Berlin/Koln/Mainz 1968, S. 156-195.
12. Lukács, Georg: Deutsche Realisten des 19. Jahrhunderts. Berlin 1953.
13. Martini Fritz: Deutsche Literature im bürgerlichen Realismus 1848-1898. Stuttgart 1981.
14. Müller-Seidel, Walter: Theodor Fontane. Soziale Romankunst in Deutschland. Stuttgart 1975.
15. Preisendanz, Wolfgang: Theodor Fontane, Darmstadt 1973.
16. Reuter, Hans-Heinrich: Theodor Fontane, 2Bd. München 1975.
17. Richter, Karl: Resignation. Eine Studie zum Werk Theodor Fontanes, in: Studien zur Poetik und Geschichte der Literature, hrsg. v.H. Fromm, H. Kuhn, W. Müller-Seidel und F. Sengle, Stuttgart 1966.

18. Schmidt-Brümmer, Horst: Formen des perspektivischen Erzählens. Fontanes "Irrungen Wirrungen," München 1971
19. Zerner, Marianne: Zur Technik von Fontanes "Irrungen Wirrungen," In: Monatshefte 45 (1953), S. 25-34.

Zusammenfassung

Der Konflikt Zwische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in "Irrungen Wirrungen"

Von Theodor Fontane

Kim, Young Zu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be ich versucht, den Konflikt zwische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in "Irrungen Wirrungen" von Theodor Fontane zu betrachten.

Theodor Fontane (1819-1898) ist der repräsentative deutsche Schriftsteller des Realismus im 19. Jahrhundert, der sowohl ein genauer Beobachter als auch Kritiker der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ist. Er hat in seinem Zeitroman "Irrungen Wirrungen," den er 1888 vollendete, die Wahrheit und Echtheit menschlicher Situationen im Andrang der Zeitkräfte dargestellt, wobei er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n Konventionen und zeitbestimmenden Situation einerseits und der Spontaneität des Herzens und der Hinfälligkeit des Glücks andererseits zum Ausdruck brachte.

Dies zeigt sich in der gescheiterten Liebe zwischen dem adeligen Offizier Botho von Rienäcker und Lene, einem Mädchen aus einfachen Verhältnissen. Lene ist die pflegetochter einer Platterin. Sie lernt bei einem Ausflug Botho kennen und die beiden verlieben sich. Ihre Heirat ist jedoch wegen der Standesunterschiede nicht denkbar. Der Ehrenkodex des preußischen Adels ist in der Gesellschaft noch so dominant, daß die Frage, ob Botho als Vertreter des Adels mit Lene als Vertreter des Kleinbürgertum ein dauerhaftes Glück finden kann, mit einem klaren Nein beantwortet. Bis zur Hälfte des Werkes dominiert in den Gesprächen das Bewußtsein von der Vergänglichkeit des Glücks. Als Musterbeispiel habe ich ein Angangsgespräch zwischen Frau Nimptsch und Frau Dörr und eine Beschreibung über den Dörrschen Garten genommen und festgestellt, daß das Glück des Individuums von den Ansprüchen der Gesellschaft bedroht wird, und die Szenen die zukünftige Scheiterung der Liebe andeutet. In der Mitte des Romans steigert sich der Konflikt zwischen Individuum Gesellschaft auf dem Gipfel. In einem Ausflugsort tauchen Bothos Offizierkameraden in zweifelhafter weiblicher Begleitung auf und damit ist der Wendepunkt erreicht. Botho kann sich den Ansprüchen seiner Gesellschaftsschicht nicht entziehen und wird in die Realität seiner Zeit, seines Standes und seiner Familie gezwungen. Die Ausweglosigkeit des Individuums ist im Konflikt zwische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so groß, daß die echte und reine Liebe daran

scheitern muß. Botho ist auf die Ansprüche seiner adeligen Gesellschaft zu sehr angewiesen, als daß er aus sie verzichten konnte. Deshalb gibt er auf seine echte Liebe zu Lene auf und heiratet Käthe, ein reiches adeliges Mädchen, auch wenn er weiß, daß Käthe bloß ein “Gesellschaftsecho” ist und kein ernstes Wort mit ihr zu reden ist. Der Realismus Lenes zeigt sich in der Annahme des Heiratsantrages von Franke. Wenn sie nicht in die Vergangenheit versinken und untergehen will, muß sie sich an einen Menschen ihres gesellschaftlichen Standes binden. Sowohl Bothos Nützlichkeitsheirat mit der albernen Käthe als auch Lenes Ehe mit den ehrenhaften, aber trocknen Sektierer Franke sind Leben ohne Glück.

Fontane steht im Hintergrund seines Werkes und stellt eine gescheiterte Liebe ganz objektiv dar. Jedoch kann der Leser die Widersprüche der preugischen Gesellschaft erkennen und fühlt ein tiefes Mitleid mit dem Leben von Botho und Lene. Der Leser erkennt, daß das, was das Leben von Botho und Lene bedeutungslos macht, gerade die gesellschaftlichen Konventionen sind. Fontane durchschaut die Unmenschlichkeit dieser Konventionen und führt uns zu der Einsicht, daß er durch sein Werk eine menschenwürdige Gesellschaft vorschlägt, wobei seine humanistische Weltanschauung zum Ausdruck kommt.

